朝鮮日報
二十八日夕刊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늑대』와『레일』

×이사이 朝鮮에는 自殺者가 만타 生活難에自殺 失戀하고自殺 어른의우중과 虐待에自殺 病이괴로워自殺 自殺의原因은미처헤일수업도록싸근하게만타 물에싸저 自殺 毒藥먹고自殺 목매여서죽는者 或은鐵道에뛰어들어 汽車에치여죽는者 自殺하는方法도가지가지이다 自來로良順하여서 自殺을容易히못하든朝鮮人이 이더지生命을스스로손쉽게하는데關하야는 經濟事情의變動 時代思想의急變한이 그因을지은바만흔것은 說明할必要가업다

×죽기에용맹이잇는者는 살기에도용맹이잇는것이다 죽을기잘하게되朝鮮人生活의裡面에는 여러가지 暗澹한慘史가잇지마는 이러한現象과한가지 朝鮮人은近者자못勇悍性을發揮하고잇다 그러나昨今한더위가들으면서 섀다른死傷者가 적지안케생기니 늑대에게불려죽는者 鐵道의『레일』을비고자다가치여죽는者가그것이다 늑대에게물려가는것은 집안에서도 門戶가부실한째에 가끔당하는일이오 더욱히집밧게서 露宿하는째에만히잇다 어려운집에 울타리와大門이 시원치못하야 房門만열어노아도한데나 마찬가지로되니반듯이露宿이弊에因함은아니지마는 그中에는 露宿으로因하야늑대를맛나는者만타

×京城에도 露宿者가만허서 近年에 더욱그弊가늘어간다 南中國의大都會 上海 漢口가튼데서 개천가 다리위通行이잣지안코 영이며만튼자리에는 數百名식퍼헤누어서세상모르고자고잇는 數만흔露宿者에 깜작놀랜旅行者가적지안치마는 京城에서이現狀은이즘의일이오 시골서는예전부터흔한일이다 露宿의不可함을 모르는것이아니오 生活困難이 結局그因을지은것이니 猝然히 어찌할길업지마는 늑대의患은눈을찌푸리게된다 朝鮮이自來로 虎患이만헛스나 近年에업서젓고 最近에銃砲의取締가 넘우煩苛한탓으로 늑대가橫行하는것은안될일이다 본래늑대란者업섯더니 野犬이일희와合하야 늑이를나흔매 늑대가되니 豺狼犬畜이 서로덤비어사람을먹음이냐? 囂然히亂世의情況을생각할만하다

×늑대의걱정이 위와갓거니와 『레일』을비고자다가汽車에치는者는 아모리편들어서생각하더라도 흥개싸진 눈임보의일이다 緣벼개를베이고조약돌우에서잠자는것이시원할는지는모르지단 한잠이 푹들은後 汽車에치여죽는것이 一種의自殺手段이라고는생각할수업다 生活이困難하고 잠자리가不完全하니싸라는理由로서 이사람들의不注意를 合當히볼수는업다 볼을섯둥미창에두고 그위에서자면서편안하다한다는 주착이업는사람의比喩와가티일을비고단잠을자다가 그야말로귀신모르게치여죽는다는것은 文化程度의 問題이다 늑대의걱정은 銃砲取締의餘孼이라고하겟지마는 레일벼개의죽엄이랴不注意도甚하다

革命區域內에 蔣介石이存在하면
그討伐은決코休止할수업다
獨裁家요謀叛者인까닭
武漢政府孫科氏對馮玉祥勸告의回答

(漢口廿三日發) 馮玉祥氏는廿日武漢政府에打電하야武漢南京政府는代表를河南省開封에派遣하고和解를圖謀하는同時에北軍에對抗할것을勸告하엿는데右에對하야孫科氏는 武漢政府는이미馮玉祥氏에對하야 蔣介石氏가 南京政府의主力이되는限에는武漢政府는南京代表와如何한會議도開치안켓다 蔣介石은獨裁政治家이며謀反者임으로蔣氏가 革命政府의區域內에잇는동안에는決코討伐을休止할수업다고語하엿다고 傳하며또一方某重要人物의談에依하면廿三日蔣介石氏로부터武漢政府에 妥協의申請이잇서武漢政府에서는目下此의對策을協議中이라더라

杭州軍武漢投降

(上海廿七日發) 二十六日午後當地와杭州間에鐵道가不通되엇다는風說이流布되엇스나 流言으로判明되엇는데 昨夜에도杭州의南軍司令官이武漢派에投하엿다고傳하는바眞僞는不明이나程潛氏가 이미江西省으로부터浙江省에進迫中임으로無根의說이라고생각할수업더라

武漢軍陸續下江
浙江省衢州에進入

(上海二十五日發) 武漢軍은南京을目標삼고陸續下江中인模樣이며吳淞에駐屯中인軍隊는二十一日早朝부터上海를經由하야浙江省杭州方面에移動을開始하엿는데上海에서는벌서부터여러가지의風說이傳하야不安의氣分이濃厚한바右에對하야確實한情報에依하면二十二日浙江省常山(錢塘江上流)에出現한武漢軍의先鋒隊가이미衢州에侵入하엿는데杭州方面에動搖의氣色이잇슴으로杭州方面守備는第二十六軍周鳳岐氏의軍隊로保存中이나守備가薄弱하기째문에方今增員中이라더라

蔣軍과交代코저 馮軍津浦線에移動
某種의協定이成立된듯

(北京二十八日發) 馮玉祥氏와蔣介石氏와의折衝은逐者王正廷氏의徐州行으로某種의協定이成立된듯한데最近馮軍은隴海線으로부터津浦線으로續續移動中이다蔣介石氏에代하야津浦線의防備에當하리라고觀測하는바萬若이것이事實이라고하면蔣介石氏는돌아어馮玉祥氏에게牽制되어드되어自身이窮地에陷하게되지나안홀가觀하더라

蔣軍一萬 上流發向

(上海二十七日發) 蕪湖廿五日發電에依하면南京軍一萬을태운中國汽船三隻은一隻의軍艦에護衛되어蕪湖를通過하야上流로向하엿더라

山東艦隊兩分 司令任命

(北京二十五日發) 靑島港에碇泊한中國艦隊의組織은今番變更되어第一艦隊第二艦隊이라고改稱하고第一艦隊司令에는沈鴻烈第二艦隊司令에는吳志馨을任命後張宗昌氏로此海軍總司令에任命할것을大元帥令으로써發布하엿더라

砲聲、火炎
共產派交戰?
武昌城外

(上海廿七日發) 漢口廿六日發至急電에依하면지금武昌城에는砲聲이들리고城外에는火災가일어낫다張發奎는昨日第四方面十一軍을引率後下航하야南當討伐에向하엿슴으로反共產派의湖南軍이이虛를乘하야共產黨을掃蕩하려고交戰하는것인듯하더라

쌔로진歸漢
一般注目

(東京電) 武漢共產黨의首領과共히避身하얏든『쌔로진』氏는最近外지廬山에留하다가二十三日漢口를向하야出發하엿다는바氏가漢口에돌아간것은武漢의首腦者와의諒解가成立되어其伏腕을揮하게된것으로그의動靜은注目되더라

쌔氏海參威行說

(東京電) 從前에武漢政府健派에게追放되어廬山에蟄居中이든露西亞共產黨員『쌔로진』氏는二十三日다시漢口에入하엿다는消息이某側에入하엿는데『쌔로진』氏는上海로부터海參威에歸還하기爲함이라더라

固鎭以南은不進
徐州는完全히奪回
山東軍前線

(奉天二十六日發) 南京軍은對武漢의關係上으로그主力軍을引退하고馮玉祥의關係로徐州方面에겨우一部를殘留할뿐인데山東軍은徐源來의部隊가韓莊을占領하고二十四日午前에徐州를完全히奪回한後挾擊에前進하야築地를設防하고兩翼에當分間은그以上은더前進치안흘計劃인데그一方의馮玉祥軍은開封外지進出하얏다가山東軍이徐州를占領한後多部分이다시滁州에退却하얏더라

武裝的妥協을希望?
奉天派態度俄然强硬化

(北京廿七日發) 武漢南京兩派間에戰爭開始의情勢에對하려고 奉天派는昨夜다시最後會議를開하고協議한結果態度가一層硬化하야武裝的妥協을促進하기로決하엿다 即第一로馮軍을討伐하야山西의態度를明瞭케만들고隴海鐵道奪取後正式으로妥協에應하리라더라

對東方策確定
山西에는和戰兩手段

(北京廿七日發) 奉天派最高會議에在한今日外지의確定的對南策은左와如하더라

一、蔣介石氏의運動은一種의退却政策으로認하고어머外지든지攻勢에出하야隴海鐵道를回復하기外지妥協에應하지안흘事

二、馮과는絶對로妥協할餘地가업다고認하고새로히攻勢에出하야速히隴海線以南에驅逐할事

三、右를爲하야孫軍을山東直省境方面에出動시킬事

四、山西의態度가明白치안흠으로和戰兩策을取할事

上海共同租界
家稅强制執行
報館에도賦課

(上海二十七日發) 租界家屋稅增課에對하야納稅者는强硬한反對를하는바工部局에서는料理店兩替店에强制執行을하고一方新聞社에는納稅勸告狀을發하엿는데昨日午後六時大新聞中西社는納稅를拒絶하엿스나濟南의『字라아』新聞及商報의二社는頑强히應하지안흠으로二社에對한電力供給을拒絶한外에右二社는今日新聞을發行할수업시되엿더라

武漢政府 排外禁止
違反者嚴罰

(北京廿五日發) 確報에依하면今番武漢政府는外國人을保護하기爲하야여러가지方法을講究하고잇는바廿四日排外運動을嚴禁할旨를一般에게布告하고萬若右禁令에違反하는者는嚴重히處罰하기로決定할旨를發表하엿다더라

蔣氏前線出馬
江北大勢를挽回코저

(上海二十七日發) 外人側의消息에依하면徐州를占領한安國軍은南軍을急追後宿州方面에向하야南軍과激戰中이다또南京來電에依하면南軍總司令蔣介石氏는津浦線北方前線의大勢를挽回하려고第四十軍長賀耀祖氏를從하야二十五日夜前線에向하엿더라

南下遂中止
武南妥協을恐怖하야

(北京廿五日發) 徐州占領의報를接한安國軍은幹部會에서左와如히決定하엿다

一、今後當分間은津浦線方面으로南下치안흘것

二、山東軍及孫傳芳軍을隴海線에서西進시키어馮玉祥軍을對抗할것

右는이째에無理히津浦線으로南下하면緊張한南京과武漢의關係를逆轉시키어그兩間의妥協이成立될念慮가잇슴으로南北妥協의成否를不拘하고南進을避하야西進할方針을取하기로決定한것이더라

鐵道會議開催
交通部內에서

(北京二十六日發) 二十五日부터交通部內에鐵道會議가開催되엿는바中國鐵道會議는民國六年에第一回로開催된以來同九年부터交通이破壞되고最近에는通年戰爭으로一層整理할必要가잇다하야第二回會議를開하고北方十餘省의出席下에第一日인二十五日에는商業運輸狀態의回復案과通貨以外에課하는貨物에對한各種의釐金附加稅等의減免案及徵稅手續의統一案을討議한것으로近來에듬은眞面目의會議로볼것이라더라

全中國에뻐친 農民團勢力
—勞工兵과相和應하야 一大動亂을惹起할듯—

(濟南二十五日發) 歷歷히報道함과가티中國의農民暴化團의勢力은益益熾烈하야馮軍의前衛에混入한바(直隸南境)에進攻한農民團은一萬數千唐生智軍은二萬湖北境에서牽制하는農軍은二萬湖南省에서共產軍에編入되어廣東에入한農民軍도萬餘其外河南部安徽山東直隸陜西方面에서大群團을作한者도不少한바此形勢로서나간다면中國人의豫言과如히農民을中心으로한一大暴力團을釀成하고此에匪賊勞工兵等이相和하야全中國의一大動亂을惹起하면第三國의藉口的干涉이잇슬지도모르겟다더라

元山港頭에서(上)
安民世

七月十一日午後四時半 는나元山驛에나렷다 出迎하여준數三氏를딸어서 新幹會支會設立大會場에갓다 처음길인故로이地方事情도약간들으면서 市街地를걸어서 會場으로된南辰熙氏의住宅兼營業場所인二層樓에갓섯다 이날의元山더위는여간이아닌데會는마치고나를爲하야옥가다라고잇다 事情으로因하야預定보담도다어서會를널엇고 諸般의일은마침엇이낫다 諸氏를向하야簡單한人事말로하고追後로懇親하기로하엿다 會長李嘉順氏는 多年間海內海外에間關하여서 白髮이거의星星하신터이니 方今에는德源園의農莊을同志들과協力하야經營하는中으로 人情世故에通하신분이오 外에는民族運動에多年苦鬪하시는靑年諸氏와 商業家와및靑年運動의鬪士들을合하야 會況이자못활되엇다 西餐을對하야셥을들인뒤市街의情況을一瞥하면서諸氏의準備한港內의船遊에參加키로하엿다 西으로長德山脈의迎峰을등지고압흐론바다에臨하야 南北으로휘유듬하게늘어안진좁고길드란都市이다 石隅洞 銘石洞 南村洞 北村洞 龍洞 南山洞 上里 中里 下村洞 新村洞 이모양으로잘하면두洞里가포개노하고 그러치안흐면一線一洞으로 속골복이란別로업시쭉내려갈력는데 道路도自然대로建物도그대자 華麗하지못한 좀殘展된漁村을생각케하는 繁昌치안흔都會이다 北으로日本人市街는舊時代의居留地들그대로진여와서山위엔金刀比羅神社 알흐로稅關 어며서든지港口에서보는그네들의舖店의樣式이다 德源에서내려오는赤田川아龍灣洞北에서바다로들어가는데이개천우에걸처잇는赤田橋—朝鮮人들이舘다리라고불르는 다리하나로저쪽은日本村 이쪽은朝鮮村으로되엇스니 北村과南村이자리는 맛얻슬망정 진고개와鍾路거리모양으로 貧富盛衰의 氣勢가말하기外지도업고 府廳으로부터 銀行 會社 稅關等一般의施設이 日本人市街에 集中되어잇다 市街地로부터、埋築工事가바야흐로곳난 北村洞正面의新埠頭로나아간다 元山하면魚物을생각하고 魚物中에도 明太를치게되지마는 蘇麻驛에서부터 明太짐을보앗고市街에내려서는港頭에싸힌것이明太이오埋築地로나오면서天幕친피창에서 소금치린『고등어』가山덤이가티싸엿다 코를찔으는魚物냄새를마트면서舟楫이、즐풀가는埠頭로나아간다 다음은六間의幹線의道路人間 바다를向하야넓히로닥거놋코 또다른가지로 丁字形으로지정다 흔자옹도또렷하게일손을갓해인、엇칠한埋築地이다 당초에埋築計劃을세운後여러번案이變更되엇스나畢竟은總事業費三十六萬圓으로 海面三萬三千三百七十二坪五合과 그커마조차보이지안하니 埋築接續된진펄二千五百坪을合하야三萬五千八百七十二坪五合을再昨年부터二個年의繼續事業으로시작하야 今年六月로써全功을맛첫다한다 埋築地의護岸工事는 充分堅固한捨石面에外지 파고들어가『콩크리트』의岸壁을싸허서干潮面上四尺의놉히로하엿스니 干滿의差가 一尺五寸內外에지나지안코 甚한風浪이드믈은灣內에잇서서 우선足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콩크리트』의幅이좁어서 그耐久性이어떠할는지숫내기의눈으로는弱하여보인다 前期한事業費는 今後十五個年의年九分一厘以內의利率로써 年賦還償하되 埋築地의貸付料와및埠頭의배집푸는마당(物揚場)의使用料로그財源을삼는다하니今後大大的으로發展될餘地를가진元山港의일이라 前途는樂觀할만하다 그러나埋築地에서서보매 旣成市街에잇는 朝鮮人家屋은 집중만번드물하게 埋築面과 水準의線에잇슬뿐이오 그커마조차보이지안하니埋築한地面이얼마나놉흔것을證明함이다 元山府의人口가 三萬六千二百餘人인데 外國人이千餘人이오 朝鮮人이二萬六千七百餘이니 全人口의七割以上에達하는것이오 石隅洞으로부터 上里中里一帶外지가그本據이다 그러나요컨外지 市街의압海岸에는아모設備가업섯고 埋築工事가마쳐서 埠頭가完成되매 그를利用할主人公은누구가될는지매우疑問인者이다 이제三萬五千八百七十二坪의다에는 大小七百餘戶의家屋이들어안즐수잇스리라고하려니와 이樞要한商利의地點은 朝鮮人이얼마나利用할것인지? 그도우선걱정되는바이지만 만일旣成市街의下水工事가不完全히된다면 石隅洞으로부터 上洞 北村洞 上里 中里一帶가 건듯하면浸水됨을免치못할것이오 되人골목의生活의悲哀는 더욱形言치못할바잇지아니할가?

上海行
芳澤氏
日本意思表明

(東京電) 芳澤中國公使는八月一日東京發赴任의途中上海에서矢田總領事와會見하고不當課稅問題를協議한後南京에向하기로決하엿고廿七日午後五時外務省에서出淵次官森次官木村亞細亞局長等과協議한結果政府의內命을帶하고蔣介石氏에對하야

一、日本政府는南京政府其他의不當課稅는不法하다고認함으로速히撤廢할것 月一日부터實施布告할課稅이라고反對함

二、關稅自主權不平等條約에對하야는中國이平穩時에合法的手段을기다려解決을期하고싶다

고日本政府의意思를表明하기로되엇더라

農露政府
쌀틱艦隊擴張
英國을防備할計劃

(스독호름二十七日發) 『라이도닌가』紙는莫斯科通信員의報道에依하면勞農露西亞는英吉利에備하기爲하야『쌀틱』艦隊의勢力을擴張하려고巡洋艦四隻水雷艇四隻潛水艦七隻을此에加하기로計劃中이라더라

안대그內容은閣議에서決한新提案에는英國의欲求를充分히發表할터이다英國政府의閣議에서英國의要求와米國의要求가根本的相違가잇서巡洋艦에關하야全般的協定은不可能하다고斷한米國은英國의新提案을도고即時會議의目的을破壞한것이라고한다如斯하야『커네바』會議의決裂은이제는倫敦서는公然히認定하게되엇더라

三國軍縮會議續報
會議는結末乃已
成功欽裂을不拘하고
【英主權臨發時聲明發表】

(倫敦二十七日發) 出發에際하야首相全權부릿치만氏는記者에對하야左와如히聲明書를與하엿더라 나今番에決裂이나成功의如何를勿論하고會議의結末을짓지안흐면안되게다英國政府는適日閣議에서會議의形勢를全體에通하야研究하야보앗스나英國의處地는依然히根本的不變이다余는數日前에『커네바』로부터歸來할際와秋毫도變함이업시協定成立의可能性에對하야도充分한希望을가지고잇다고言明할수가잇슴을깁버한다 또全權『세실』卿은新聞記者에對하야『余는終始一貫하야會議에對한希望을버리지안흐나目下의形勢는疑心업시險惡하다』라고語하더라

◇倫敦物論은 缺裂로公認◇

(倫敦二十七日發) 首相이不在한外務에藏相『차칠』氏는二十七日下院에서聲明書를發表할터이라

六十萬噸要求
事實無根

(倫敦廿八日發) 廿七日英國下院에서議員『켄와자』中佐는『英國代表가六十萬噸의巡洋艦噸量을要求하얏다』고傳하는데對하야外相兼首相代理『첸바렌』氏는그런事實이업다고否定할수잇는가』라고質問함에對하야『첸바렌』氏는我代表는六十萬噸이라는數字는決斷코말한일이업다 또아서余는貴下의希望대로그런事實이업다고斷言하는바이다』라고答하엿다 또『첸바렌』氏는右의事實에關하야 英國代表에게照會함이라고解한다고傳하더라

會議의成功은
海軍建造計劃에잇다
米海軍長官演說

(메인州토마스톤廿六日發) 亞米利加第一次大統領의『조지』華盛頓內閣의陸軍長官인『헨리·녹크스』氏의誕生紀念會에서現海軍長官『윌바』氏는演說하여曰米國은『커네바』會議의成行如何에不拘하고그海軍建造計劃을遂行하고또八吋砲를備할大型巡洋艦數隻을建造하지안흐면안되겟다主張하고『커네바』에서頻頻히主張하는바와가티砲徑이적은小型巡洋艦을多數히保持하는것보다米海軍에對하야最良의策은砲徑이큰大型巡洋艦을多數히保持함이라고斷言하고또吾人은日本과英國이第一回華盛頓條約後建造한새로운軍艦을今回의『커네바』會議의結果海軍軍備制限을爲하야廢棄할決心이잇는것이라고期待할수는업다또亞米利加로말하드라도그런目的으로다시새로히軍艦을犧牲할수는不能하다고指摘하엿더라

002806

結果를엇도록努力하라
齋藤氏에訓電

(東京電) 二十七日閣議의結果『커네바』齋藤全權에對하야訓電을發하엿는데其要旨는『커네바』會議에서最近亞米利加는日英兩國의協調에反對하고噸數及口徑에對하야現有勢力以上의擴張實現을圖할意思를가지고잇는듯하다할지아서英國도亦是이에딸리어갈憂慮가잇다如斯하야서는會議開催의精神에反함으로써日本으로서는기어히兩國을牽制하고軍備縮少國民負擔輕減의目的에副할結果를엇도록最善의努力을하라고하엿더라

反動派銃殺數
七百五十二名

(哈爾賓二十六日發) 信據할만한側의情報에依하면勞農國家保安部同地方支部의手에依하야銃殺된反動運動者는一月부터四月까지七百五十名에達하엿다此數字는地方別로하면『몰키스탄』三百十名『레우라이나』百二十名莫斯科九十三名『레닌그란드』五十九名等으로『우크라이나』地方에는反勞農運動이擴大中임으로目下討伐隊에서大檢擧를하는中이라더라

八面鋒

○三國軍縮의、英國處地는極端的이라고、米國의海上權讓爭을對抗하기에、숨이턱에차는게지

○그다음에、米國의標傍敵이라는日本은、무슨딸인가、黃金萬能의주먹에、모다얼어지나

○孫科氏말이、革命區域안에蔣介石氏가잇스면、討伐을쉬지안켓다고、革命의前驅者가、革命區域안에、容身도許諾지안케된것은、일즉이想像치못한일이지

○張作霖은、武漢、南京의兩派妥協이될가두려워서、軍隊의南下를中止시킨다고、남못되는것은나잘되는것보다조타는格이로군

閣議決定事項

(東京電) 二十七日閣議決定事項은左와如하더라

一、朝鮮及滿洲에在한警察官吏의職務應援에關한件

一、中國駐箚陸軍部隊給料中改正의件

一、朝鮮私設鐵道買收에關한件

莫斯科東京間飛行

(東京電) 露西亞는八月十三日莫斯科發『치타』『스파스코』平壤岡山을經하야東京에飛行할터가東京大使館에入電되엇는데『후푸아야세』『스타니푸』氏操縱『푸푸아야에푸』機關士가同乘할터이더라

移轉廣告

今般本醫院을左記場所에新築하옵고新院舍로移轉하얏사오니一般患者諸位는照亮하신後더욱愛顧를伏望하나이다

外科 產婦人科 朴容駿醫院
仁寺洞(里門內)一五三番地
電話光化門一七〇三番

男 生殖器의冷水浴
短小와機能衰弱에는 特히第一有効!

專賣特許療法

生理學上陰莖의發育에는、조혼血液이充分히局部에流通하는것이最히必要함、그러고局部의發育不良、短小하거나機能衰弱에는專賣特許眞空水治療法器로局部에直接的療法을行하면、目前에忽然히理學的眞空作用의神秘的吸引力으로因하야局部에新鮮한血液을集하야流動이充滿하고細胞가肉鮮하며活力이發하야筋肉을充分히緊張케하고、活動을喚起하며、此時本器의一方에잇는冷水口로부터冷水를局部에注入하야全部는물에浸하며水力作用에依하야局部血管에一層血流를旺盛케하며、水의溫度刺戟과溯刺作用으로、局部神經에覺醒的復活力을與하며、局部皮膚及筋力의世을堅固케하고、局部는一回마다顯著히發育되야弱小한것도强大하게되며、局部의貧血、手淫、過淫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性慾減退、無力한것도차차抗力活되야人生의至上한幸福을到達하게되는것이顯著한冷水浴이나冷水摩擦이身心의健康에偉大한効驗이잇다는것은世界醫學界의定評이나、局部의衰弱에는局部에冷水를灌注하는것만으로도相當의効力이잇는것은專門醫家의著書에도보는바이나、特히巧妙한本器로行하는生殖器의物理的水治療法의一大卓効는實驗界에누가알아니하여도許與이日高하여지며自己로簡便安全、秘密하게되니바只今이第一好時機이니早速實驗하여보시요

日本政府登錄商標

◇衛生博覽會나發明共進會에서名譽大金牌受領
◇醫學博士八名實驗證明及驗讚辭
專賣特許 登錄商標 眞空水治療法器 定價 金四圓八十錢
包莖安全自療器 定價 金四圓
◇無代進呈(非賣品) 圖入說明書 全部 ハガキで御申込下さい
東京新療法研究所

社會奉仕
特別廉價大放賣
親玉製麵機械
(割引新定價) 一百臺에限함

甲號 一臺 金一百七十圓也
乙號 同 金一百二十圓也
丙號 同 金一百十圓也
丁號 同 金九十五圓也
新定價 十五番以下 金拾圓也
十五番부터二十番外지 金拾壹圓也
廿番부터二十五番外지 金拾貳圓也

最新式○特製 八谷式製麵機 八谷式棉纖機 特許製造品 鈑鐵製機械
八谷工場
朝鮮大邱府八雲町 電話長一〇四七番 振替京城一二三七番 私書函大邱第三十號

咸南定平에 十五人拳銃隊
日本人三名射殺
定平署武裝活動도 水泡
＝이십이일에○○단십오명이나타나서 일본사람세을쏘아죽이고자최를감취＝

덕천(德川)일대에 오인의권총대가 잠입하야이명을상하고 군자금을모집해가며 여러로수사대와 총화를서로밧구되 필경교묘하게 자최를감추어 출동한수백무장경관대로 하야금 헛물만켜게하는이때 지난이십이일에는 정평군고산면(定平郡高山面)에도 무장한○○단 십오명이잠입하야일본인간첩 세사람을권총으로 쏘아죽이고 이웃에잇는 농가(農家)에 들어가점심까지 시켜먹은후 산을넘어 어데로가버렷스나 읍과멀리떨어진촌락으로 뒤늣게야이소식을들은 정평서(定平署)에서는 즉시각주재소원까지 합하야무장을하고 뒤를쫏차 엄밀히수색중이라는데 아즉까지도 그들의종적은오리무중이라더라(함흥)

駐在所襲擊
射傷警官絶命
지나간뒤에수사대도착
龜城拳銃隊詳報

긔보＝지난이십사일오후네시반경에 평북귀성군관서면 조악동경찰관출장소(平北龜城郡館西面造岳洞警察官出張所)에 근무하는도순사 일인중위호(道巡查重爲好)(三六)와 그외평민 박태균(朴泰均)이가○○단의권총에마저서사망하얏다함은이미본보에 게재한바이어니와 그후이에대한자세한 사항을 탐문한즉 그날전긔중순사가 출장소대문압에서 당번을보고 잇섯든바 수상한조선사람네명이그압흘지내감으로 전긔순사는 이네명을붓들고 무엇을물어보라할 지음에 전긔네명은돌연몸을피하야근처 만선려관(滿鮮旅館)압기등에숨어서 출장소로향하야 권총을란사하는바람에 전긔중순사는 가슴과다리에 총상을당하고 넘어지자또출장소안에서도전긔네명과 응전하얏섯는바이들 네명은 한참동안서로 응전하다가 그만 그곳뒤산중으로도망하야버렷는데이와가티서로권총차흥이일어날때에 그여갓롬에서목욕을하고 잇던그동리에거주하는박태균이는 권총류탄(流彈)에마저서즉사하엿고전긔중순사는안동병원(安東病院)으로실고갓는도중사긔면신시(沙器面新市)에서이십오일오후한시경에 그만 사망하얏다는바 전긔경관출장소 에서는즉시○○단네명을추적하야산속을수색하는동시에이급보를들은귀성서산뎐서장(龜城署山田署長)은 부하이십명을인솔하고 현장에급행하얏다더라(귀성)

印工組合은 臨總을開催
대동인쇄파사건으로

별항보도한 대동인쇄 주식회사 직공맹파사건(大東印刷株式會社職工盟罷事件)에대하야 인쇄직공대표중 교섭위원인 림봉연(林鳳然)도정호(都正浩)량씨는 이십칠일에 회사측과 최후의교섭을한결과 회사측에서는 중역회를열고 서로협의한후 이십팔일오후 아홉시까지 교섭에대한 회답을 하기로 하얏스며 또한 서인쇄 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에서는 이십구일오후팔시에 인쇄직공림시총회를 개최 하고 파업건말보고와 밋대책강구 등에대하야 협의하리라는데 장소는아직미정이라더라

勞總도干涉
대동인쇄직공맹파(大東印刷職工盟罷)사건에대하야 시내로총(勞總)에서는 이맹파문제를 원만히해결하기위하야 동총맹상무 조경서(常務曹景叙)씨를 교섭위원으로선정하야 회사측과 교섭한결과 회사측에서는 이십팔일중으로 중역회(重役會)를 개최한후 회답하기로 하엿다는바 만일이문데가원만히 해결되지 못할때에는 재경각인쇄직공의 동정총파업(同情總罷業)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더라

一驛二店도整理上
慶賀할現象이라고
일역일뎜이되면조흐나 할수업다면그대로한다
【鐵道局戶田理事聲明】

일역일뎜주의를 극력 반대하는 선운동우회(鮮運同友會)교섭위원(交涉委員)다섯명은이십칠일 오전아홉시경에텰도국(鐵道局) 호뎐리사(戶田理事)를방문하고 동우회에서 일역일뎜주의를 반대한다한즉 호뎐씨는 당국에서도 그것을리상(理想)으로 역여 찬성은하얏스나 그러케 하지안어서는안된다고성명(聲明)을한 적은 업다고대답함으로 다시일역이뎜주의를 주장한다고 한즉 또한호뎐씨는 당국에서도 원래 운송뎜을 정리할 필요는생각하얏스나 일역이뎜주의를 요구한일도 업섯는데 만일그러케라도 자진하야 정리하여 주기를요구한다면 반가운 현상이며만일일역일뎜주의가 실현된다면 당국으로서는 현재이상의 편의를내겟스며 만일 그러케되지못하겟다면 할수업시 현상대로진행하겟다고 언명하얏는데 선운동우회대표들은 대합동운동자 대표들과 조선텰도협회(朝鮮鐵道協會) 사무실에모혀협의하야태도를선명히하리라더라

現在一店驛에서
荷主가밧는不便
하물이폭주할때에도 인부를늘이지아니해

소운송합동(小運送合同)은하주(荷主)의리해에대하야는하등의 고려치도 아니하얏스며 또하주측에서 밧는바 리익이라고는 조곰도어더볼수 업슬뿐더러 몰이혀불리한뎜이 만허서 반대가 만코또하주가 불편과 불리를밧는것은 이미일본에서도 실례가 만흐며 또조선안에서도 오늘까지에 일역일뎜을실현한수원(水原) 오산(烏山)평택(平澤)텬안(天安)개원(開原)등의모양을듯더라도 종래는수하주(受荷主)에게까지 하물을가지고 가서증권(證券)과밧구는것인데 일역일뎜이되면 하주가 증권을가지고 하물을차지러가야만하게되며또 종래는 동업자의 경쟁으로하물이폭주(輻湊)나하면림시로고용을두어급속히 하물을 운반하얏는데 일역일뎜이되여는일정한운반인이잇서 아모리하물이 폭주할지라도증원은 시키어 속히운반을도모치아니할것이며시골서는 하주에게불친절할모양이라더라

普成高普
暴行學生收監
서대문형무소에

보성고등보통학교장 최명환(普成高普校長崔鳴煥)씨에게 폭행을한 동교생도인시내숭삼동(崇三洞)일백이십삼번디박종운(朴鍾雲)(三)과 원남동(苑南洞)일백구십륙번디 박일봉(朴一鳳)(一八)과충신동(忠信洞)삼십일번디의일한종수(韓宗洙)(一九)와화동(花洞)일백구십륙번디조성효(趙性孝)(一八)충신동(忠信洞)삼십일번디의 사 장병창(張秉昌)(一九)내자동(內資洞)일백이번디 리뎡룡(李丁龍)(二一)의 여섯명은 동대문서에서 폭행행위등처벌규측위반(暴行行爲等處罰規則違反)으로취됴하고불구속(不拘束)으로경성디방법원 검사국으로송치하얏든바이십칠일오후 네시에 리뎡룡만빼이고는 전부가돌연히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엇더라

燒失戶數五千四百
損害三百八十萬圓
화재로생긴엄청난손해
【昨年一年間火災統計】

작년중에 조선안에서 일어난화재는실화(失火)가삼천이백사십오번방화(放火)백팔십륙번기타 이백이십륙번합계삼천륙백오십칠번으로소실호수(燒失戶數)는 오천삼백팔십일호에 륙천 륙백륙십칠동(棟)으로서이에대한평수(坪數)는칠만이천칠백삼십평이오 이손해금은 삼백팔십이만칠천원에달하는바 이것을 각도별(道別)로보면 전남(全南)의 백칠만륙천원이 데일위요 경긔도(京畿道)의륙십일만일천원경북(慶北)의 삼십륙만삼천원이 그다음이며 충북(忠北)의사만 일천원이가장적은데최근오개년간의 화재도수(火災度數)와 및 손해금액(損害金額)을보면다음과갓다더라

年別	度數	金額
大正十一年	三,八六六	三,○三五
大正十二年	三,六三四	七,三八四
大正十三年	四,五五七	五,七二五
昭和元年	三,六九一	三,八二七

無票乘車客
疾走中飛降
두부와흉부중상

이십륙일 오후령시반경에 경의선한포남천간(京義線汗浦南川間) 을케륙십이렬차가진행할때에삼등차로부터 돌연히 뛰어나리는자가 잇슴으로 됴사하야본즉 이자는부근민가에 숨어잇섯는데 머리와얼골에 부상하얏고 생명에는관계가 업다는바 동인은신막(新幕)으로부터표업시승차하얏던것인데 차장이표됴사를시작함으로그와가티뛰어린것이라더라

罷業繼續職工
全朝鮮에飛檄
파업을철더히원조해달라고
大東印工紛糾續報

긔보＝돌연동맹파업을단행한대동인쇄회사(大東印刷會社)의직공중직공감독과 밋기타직공 열명은 이십칠일오후두시에 이르러취업(就業)하엿스나남어지오십명은 끈수동경성인쇄 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에집합하야더욱 결속을굿게하고 협의한결과 전조선의 인쇄직공조합에 격문을보내어 파업동원을 구하기로 되엇는바 파업의원인과 밋경과 또한그가튼계급의열렬한 성원을 어더서 최후의승리를 엇기까지 싸우도록 동정과원조를바란다는의미의응원의뢰장(應援依賴狀)을경성인쇄직공동맹을의시하야부산(釜山)함흥(咸興)북청(北靑)과인공동맹(印工同盟)과 대구(大邱)원산(元山)광주(光州)의각인쇄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또는라남(羅南) 해주(海州)의각인쇄공친목회(印刷工親睦會)의열단데에 발송한후 회사에대하야 요구한것과가티 결의를하얏는데회사측(會社側)은만흔인쇄직공의실업군(失業群)을밧기위하야 강경한태도로 써혹은 단호한처치를 할는지도모른다더라

巡查被殺
범인은종적은 오리무중에들고말아

일본 대분현 우좌군사일시경찰서(大分縣宇佐郡四日市)관내에서는 요사히 강도방화(强盜放火)사건이 속출하야 소관서(所管署)에서는 이범인을 데포하라고 밤낫으로노력하든바 이십칠일미명에 동원내촌 주재순사(東院內村駐在巡查)가일시료리뎜 일이삼루(一日市料理店一二三樓)압을경계하든중 방금 삼십세전후쯤 되어보이는 수상한사람 한명을보고 데포코자할지음에 괴한은별안간 일본식칼을들고 전긔순사의 심장을깁게 찔럿는데 순사는다시 정신을차리어 도적의옷소매를 붓잡어격투하얏스나 드듸어괴한은 도망하게되엇고 전긔순사는 십분쯤 지나서 그만절명하얏는바 이순사의일홈은 이원겸오랑(猪原兼五郞)(吳)이라더라

露領에遠飛햇든
許一君今朝被捉
목하종로서에서엄중취조중

시내적박단(赤雹團)의 간부로 잇든 허일(許一)은 작년륙월에 공산당원 검거때에 일즉이국경을넘어서 로령(露領)으로건너갓다가삼사일전에표연히 경성으로 돌아와서 시내원동(苑洞)백십이번디박모(朴某)의 집에잠복하야잇는것을종로서고등계(鍾路署高等係)에서탐지하고이십팔일 오전여덟시에 데포한후방금 비밀리에취됴 하는중인데 이와동시에 전긔허일을잠복케하엿던박모도허일의사정을 알면서도 숨겻다는 리유로동행 취됴중이라더라

運動競技

東京留學生歡迎
蹴球聯盟戰
戊午·崇實·平高·平靑

今般歸國한東京留學生訪問蹴球團은平壤法優俱樂部主催와本報支局後援으로廿九、卅兩日間午後四時부터平壤光成高普校球場에서戊午 崇實 全平壤高普 靑年 四團體와聯盟蹴球戰이擧行될터인데 大盛況을豫期한다더라(平壤)

廿九日의運動
大朝主催第七回朝鮮中等學校野球戰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龍中對釜商(午前九時)△仁商對徽文(零時半)△京師附對釜中(午後四時)

去益甚한中國人行悖
朝鮮人을또合力亂打
被害者現場에서氣絶
맥주병으로수십명중국인이폭행
昨夜悅賓樓에血雨

요사이 국내국외를 물론하고남북만주(南北滿洲)와기타중국각디로부터조선내 각디에 이르기까지중국인(中國人)의폭행사건이련속부절하는중최근으로말하면시내다방원(茶芳園)사건과삼청동(三淸洞)에서호떡장사중국인이텰봉을가지고고차먹으려들어온조선사람을 타살한것과 기타 각중국인료리뎜과각종상뎜에서 조선사람이억울히구타를당한사실이한두번으로말하야도일천에다방으로말하야할수업스며 신의주(新義州)에서중국인의발사가손님과 싸우고 상주(尙州)에서도중를비것과 상주(尙州)에서도중국인포목상이물건살어간조선부녀를 무리구타한사실을 비롯하야중국인의 폭행사건이 헤아리기도어려울만치만하서 실로 조선사람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는터이나경찰당국은무더데다는엇던리엽는데압에서사실노코 중국이잘못할리는 만무하의시비곡직을불문하고조선인을혈만커벌을함으로중국인은혈욋도 건드리지아니하는 경우가 만하서그들의 행패는 날이갈사록우심하야가는터인데 이십칠일에도 오후열한시경되어 시내돈의동(敦義洞)열빈루(悅賓樓)라는 중국료리뎜에서시내각처에서장사하는중국인들이 모혀 중국기생을다리고술을먹고질탕이노는중에 중국녀자의 노래소리를처음듯는 부근동리사람 들은구경을하고자 그료리집문안에 모혀섯슬때에엇던조선사람이말하기를 그노래소리가 우는소리갓다고하얏더니별안간그료리뎜에 잇는중국인수십명이 나와서 맥주병으로조선사람두명을무수히구타하야 인사불성의 중상을 당하얏스며 현장에는 선혈이림리하얏는데 결국부근 파출소원은와서피해자인 조선사람 두명은잡어가고 가해자인 중국인에게는아모말도아니하다가얼마동안후에 중국인두명이 인력거를타고서서히종로서로가게되엇다더라

『中國人行悖는 나도들엇소』
土師警察部長談

이에대하야 경긔도 토사경찰부장(京畿道土師警察部長)은 아래와가티말하더라

나도 벌서부터 중국인들의행패가넘우도심하야종종조선사람과 충돌이생긴다는것은 들엇스나 특히 외국인인까닭에 감정을 사는것은 자미가업슴으로 만흔용서를하야왓지마는 그들의행패가 과연그다지 우심하다고하면 그대로 버려둘수가업스며 또경찰관리가 그와가티 불공평한 처사를한다면나도종로서로부터알어보겟습니다

加害中國人은
人力車로行次
被害者는警官에잡혀가
술에취햇다고일반은비난
◇無能한派出所員

이와가티 경관이 나온후에 조선사람두명을 중국인이 때려죽엿다는소문이 사방으로 뎐파되매 의분에 못이기는 천여군중이몰밀닷이 몰려들어 동관일대는인산인해를 일우엇스며 그중에는 그료리집을 파괴하야 버리라는 소리가 빗발치듯하얏스나 또한편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중국인과는 여러가지방면으로 동정을하는터이니 경관의처분만 기다림이요 직접행동은할 필요가업다고하야 천여군중은 살기등등한 가운데도가장온건한 태도를가지게 되엇는데 결국경관의처사가 전항과가튼을보고 말하기를 열빈루는 종로서전속료리뎜이니까 중국놈만 극단으로 보호한다고도하며 또한편에서는 파출소순사들이 그료리뎜에 드나들며 공술잔이나 어더먹는 까닭에 그놈들에게 매수되어그러하다고도하야 의분에 넘치는 군중은 억울한눈물을먹음고 밤열두시반이나되어 흐터저갓다더라

被害者
鳳翼洞一二 李南龍(二〇)
鍾路三丁目一五 蔡東煥(二四)

加害者代表
悅賓樓事務員王秉臨(二四)

激昻한三百群衆
郡守家를襲擊
군수안해목을졸르고자녀를란타
가장집물까지닥치는대로부수어
原因은市場位置問題

지난이십삼일 오후칠시경에 경상남도거창군거창면 금천동(居昌郡居昌面金川洞)주민남녀 삼백여명은 동군김(金)군수의 가택을습격하고 동군수의 부인의 목을조르는것을 비롯하야 동군수의자녀들에게에까지폭행하고 가구를 파손한후 그길로또다시 동면면장의 집을습격 하라다가 경관의제지로 그것에는 뜻을일우지 못하엿다는데 그원인은 지난 대정십일년이래로 동면중앙을흐르는 개천을중심으로 개천의북편인 동동(東洞)급 하동(下洞)과 개천의남편인 전긔금천동은 동면시장(市場)의 쟁탈전이격렬하야 량편에서 그진정을도당국에 하여내려오든중 최근에이르러서는 개천북편에는 인구가 사천에달하고 또각종요관텽이잇는 관계로 도당국에서는 그인가를륙월구일에 개천북편에나렷는데이에표면의해결은 되엇스나 개천남북주민은 불평을품기시작하야 형세가험악 함으로도당국에서는이십삼일에김(金)군속을 됴사원으로 파견하엿든바 이에전긔주민의 인심이 격앙되어 필경전긔와가튼 소동을일우엇스며 이십칠일에는 또다시 량편주민의진정이 비롯되엇다더라(부산)

兄弟轢死
긔차선로에서
낫잠을자다가

요사이일긔가 더움으로 낫잠을자는데 텰로(鐵路)를베고 낫잠을자다가긔차에치어죽는일이만타함은 련일보도한바 이어니와 이제또이십칠일 오후열두시경에 고양군한지면주재소(高陽郡漢芝面駐在所)에전신에 피투성이를하고 달려와서 우리형님이 긔차에치엇다고 급보하는 남자가잇서서 재판은즉시 현장인한지면서빙고(漢芝面西氷庫)의북편 약삼백간되는곳에 급행하여본즉 한명의남자가 머리와다리를텰차에치어서 가루가되다 십히되어 무참한죽엄을 한것을발견하고 즉시본서에 급보한과동시에텰도병원(鐵道病院)으로실고가서 응급치료를하얏스나 되어 소생되지못하얏는데 이자는광주군(廣州郡)에거주하는문순옥(文順玉)(三)과문윤옥(文尹玉)의형제로서 동무에게 맛첫던범선(帆船)을 찾기위하야 서빙고로와서멧칠안에한강(漢江)을역강(逆江)하야올라갈예정이엇섯든바 그날밤에는 소주를베잔먹고 텰로를비고자던중 열한시룡산발 원산행렬차에 그와가티치인것이라는바 아우인 문윤옥도 렬차에치어서머리에네케처를되는 렬상(裂傷)을입엇다더라

娼妓出身의淫婦
것사랑에속은靑年
양재물까지먹으며사랑을표현튼 유곽의녀자에게고랑떠먹은청년
【性慾地獄의七面鳥】

사랑 사랑은위대하다 사랑에국경(國境)이업스며귀천(貴賤)이 업다 사랑압헤는명예(名譽)도 디위(地位)도재산(財産)도하등의위력이업스니 이케 사랑으로 인하야 집을일엇스며 사랑하는 본안해까지 리혼을 하엿스나결국승리를엇지못하얏지안런 사랑하는 사람을걸어 시내본뎡서(本町署)에 고소를 제긔한청년한명이 잇스니 그는시내원남동(苑南洞) 이백이십 사번디한모(韓某)(二四)란 청년으로 상대의녀성은 일즉이 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 평양루(平壤樓)에 창기로잇던김산호주(金珊瑚珠)(三)로 작년십월경에 우연한긔회로 전긔한모는 산호주를만나게된이래연연중 두사람의 사랑은점점깁허짐을 딸아 전긔산호주로부터 동거를애원 하엿스나 한모는이미안해가잇는사람이라 쾌히허락을 하지못하고 속으로 혼자하는 가슴을 억제치못하야 번민을하고잇던중 작년 십이월중에산호주가 몰멍히 전긔한모의집에 나타나 나는당신을두한히사랑하나 결국당신과는 동거를못할바에는 당신압헤서 차라리죽어버리겟다 고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하려하는것을 곳부근의사람을 청하야 응급수당을한결과 소생하게되매 이에까지 녀자의 구든 결심을 본전긔 한모는모든것을 단념하고 업는 돈에 집을전집하야 삼백원의 부채를 판상한후 전긔 산호주를 마굴속에서 구해내어 본부인과 한집에서 동거해온바또 다시 가진아양을다 하야 산호주의 매일매일조르는바람에 뜻하지안턴 본부인까지 리혼(離婚)을하게되자 전긔산호주가 자연히 본부인이되어 이태자미스러운가정을 일우어오던중 금년삼월경에 우연한일로 한모가륙개월예정으로 대판(大阪)방면에 출장을 가게되엇스나 이역에서 그리운 안해를생각하는맘이 간절하야 륙개월예정이던것을 삼개월만에 일즉마치고 귀국하엿섯다 그러나 밋지못할것은 녀성(女性)이라 더욱이 화류계(花柳界)녀자이라삼개월이란그동안을 참지못하야 뎡부(情夫)를두고 매일매일 단꿈을꾸고잇는일면으로 예전생활을 동경한이어던지 또다시 시내룡산(龍山)모음식점에 오십원을밧고작부(酌婦)로 팔려갓스나 사랑하는안해를 하루밧비 만나려고몰아온한모는 놀라움을 마지안엇스나 한갓사랑에 썰리는맘은일변으로 속도모르고 돌이혀돈이업서 커가티작부노릇을하엿다는 일종의동정심이 생기어그부채를 또다시판상하고 구해내엿스나 사랑을하여던 은혜를모르는 전긔산호주는 못된버릇을조금도 개과치안코시내광희뎡(光熙町)조모(趙某)(三)란자를 정부로두고 한모의눈을속이어 비밀히 정을통해오던것을 전긔한모가 비로소알고 루두히못된버릇을 개준토록일넛스나 사람의 심장을잃은 산호주는 개준키커녕 돌이어 전긔한모에게가진폭배을함으로 하는수업시 전긔산호주를걸어 갑하준몸갑 삼백오십원을 반환하라는 고소를전긔와가티케긔한것이라더라

醉中에强姦
檢事局行
강간당한녀자는 락태까지되엇다

경긔도진위군포승면도곡리(振威郡浦升面道谷里) 사는리언년(李彦年)열일곱살된녀자는멧칠전오후일곱시 쯤되어 어대를다녀집으로 오든중동리뒤산 에일으매 돌연엇던술취한자가 달려들어 짐승가튼욕심을 채우라함으로힘을 다하야 반항하엿 스나 원데강약이 부동으로 욕을당하엿다는데 그녀자는 당시태중이엇슴으로 놀라그후 멧칠만에락태(落胎)까지되엇다는사실을탐지하고 소할평택경찰서(平澤警察署)에체포되어 엄중한취조를 밧다가 지난이십륙일 경성디방법원수원지청검사국(水原支廳檢事局)으로 넘엇다는데그자는 그동리사는박월석(朴月石)(三)이란자로 커자까지잇는자라 더라(평택)

疾病崩壞로 …

納稅期日도안되엇는데 …

イマヅ蠅取粉
蠅蚊、南京虫의 全滅藥

梅毒?
신구병의배약이무효하며년년재발되는원인을하약중이라도본원케는한케복용이내에거근되야평생재발치아니함
약가상품십원、완고유명품한케삼십원、송료각십오전

淋疾?
남녀간림질에배약이무효한난치ㅅ고질이라도본원비케에를근가루를쓰면불과일이십분에소변으로불타는것이부정한것이연출하고거근되야개발치안는세계적선약을써보시요약가상품칠원、완고유명품십삼원송료각십오전 만일에본원케를써서조금이라도범연하면어대까지라도무료로전치해들립을청명하오니의려마시고써보십시요

京城府體智洞二十五番地
內外科及各科 濟衆院
振替京城一五、二二一番

本人이忠南江景市로부터今般에左記場所로營業을移設이온바原來神秘한方術로專門的痼疾狂症에治療는三個月內에特效를奏하고其他諸般重症에도隨症試術하면特異한神効를自期하오니僉彦는一次愛顧實驗하시기를敬要함
京城府蓮南洞七三番地
世一醫院
崔錫祺 白

當七月二十八日(木曜)부터大公開
●大메도로골드윈社超特作映畫
社會劇 征服의力 全八卷
라루후、투이스氏 아리스、데리ー孃共演!
◎米國데스트라듸유포아社大傑作
續活劇 虎의爪 最終篇十卷上場
大冒險女王헤렌홀무스孃決死的大飛躍
實篤 폭스時報 全八卷!

萬難迎擊殺陳必勝
愛馬의功名
五萬弗의大事件
호와이드시스다 突貫急行
入場料特別大割引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優美館 電光三九五

廣告 도로記事이오니 注意해보시옵

七月二十五日封切▲
유나이데트애지스트特別提供
메리픽포드孃主演作品
名作 小公子 全十卷
알프레드그린氏監督 再輸入公開!픽포드孃名演品
피드모리손氏主演
▲유社特作大衆西部劇
底徹的大奮鬪 全五卷
모리손氏獨特한痛快劇
▲유社特作大衆連續
完結 라듸오探偵 九十篇 全四卷
▲유社 國際時報 全一卷
八月一日부터納凉映畫大會開催

特別豫告
斷髮 북그러워 全八卷
落陽의 길 全十卷
曲馬團(바리에데) 全八卷
第一無情 全二十二卷
曉의戰線 全十卷
우리들의바다 全十卷
眞紅의文字 全十卷
스테라다라스 全十一卷
원다미야夫人의부채 全九卷
녀마권의子만 全七卷
사랑은죽도려黑幕自在 全八卷
유社폭스 專屬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絶對의寶典

●書簡(紙片)잘쓰거는＝成功의基!
못쓰기는＝失敗의因!
◎本書一册만잇스면 엇더한片紙든지 いろは만 뵈운人士이면 생각대로쓸수잇소
◇本書는斯學研究會에서專門大家가多年苦心研究한結果完成한名書이라他人이숭내도내지못할理想的의新案大寶典이라
本書一册만잇스면如何히片紙를잘쓰지못하는人士일지라도何等의受害가업시活用할수잇서서생각먹은대로술술써서어는사람으로하야금感服하게하는片紙를卽座에쓸수잇도록極히巧妙하게留意한空前의大辭典이라
◆總目次를數百項에分하야◆片紙의法則◆作法의秘訣◆候文◆口語文◆日用文◆商用文◆趣味의片紙◆女子文◆男女戀愛의片紙
完成한最新式의片紙大辭典
其他片紙이면무엇이든지 いろは만알면생각대로쓸수잇소
大附錄 新現代用語總覽 英語로된新語辭典
을添附한故로本書一册이面으로十册分의價値가잇소
▼最新形洋裝總子로!△上製金文字箱入頗美本▼定價金二圓인것을四十販賣에限하야特價金壹圓五十錢
☒前金送料共一圓五十八錢
☒代金引換은一圓七十五錢
無比의廉價

◎發賣所 ☒日用三件 편글자草書字典無代添付
東京市銀座西紺屋町六 振替東京六二六〇番 中央書院

絶對無二한寸虫新藥
寸虫藥(촌충약)
可恐할寸虫 보라
人體榮養의養分을盜吸하는
本劑는今番東西洋醫學界에서積年經驗에奏効한最新處方에基하고또多數한虫病專門大家의實地研鑽을經한特効藥을配伍한寸虫新藥으로本院에서特別精選製造한者로其効力이偉大迅速함이形言키難한最新藥이며또治療法이便利하야再發에念慮가全無하오니寸虫患者諸君은安心使用하시압
藥價 一劑 一圓三十錢
上同 二劑 二圓六十錢 送料金은本院에서負擔함
京城仁寺洞二百四番地(鍾路里門內)
再生堂藥房
寸虫病專門藥院

炎暑에
天一靈神丸(텬일령신환)
폭폭찌게더운날天一靈神丸한알 삼키시면 완연히 내라고松島 몸과 마음淸爽호氣分이 됨니다
藥價七錢 二十錢 五十錢 壹圓
到處藥房雜貨店에잇슴니다

京城府鍾路通一七九
天一藥房
電話光(光)三九五番

◇大同郡大慘事

평양서(平壤署)에서는 사법계 주임(司法係主任)이 경관다섯명 …

… 불령하다 더라(평양지국뎐화)

◇羅州收稅吏의不法

… 도 불ㅜ하고 직권을람용하야동 면 신천리(同面新川里) 김창돈 … 것도 돌아보지안코 불법의차압 을행하며 보증인(保證人) 인동 … 오십여호를 차압하게 되엇 … 로 일반은그군속의 불법차압을 …

… 지난 십팔일오전 두시경에 … 녕변 읍내 남산현(平北寧邊) … 조사하얏고 지난이삼일에 … 큰터진넘을 데포하엿다 는데범 … 더라(녕변)

땀나오는리치(五)

생리뎍이나병리뎍으로 몸을보호하는미묘한작용

또한아조 건강례이면서도 몹시 규측한땀이 나오는병도 잇습니다 이것은편측다한증(偏側多汗症)이라는즉 신톄어떤 한편에만 땀이발한어되는 수가잇고보통은 온몸으로인하야 발한되는데 에는 하등의다른 징조가업스나 고초가루, 호초가루, 마눌, 파, 초 등의자극성이 들어간 음식을먹으면 신톄의어느한편에만 발한이되는이도 잇습니다 혹은얼굴 절반만 땀흘리는이도 잇는데 이것은대개 유뎐뎍으로 볼수잇스니 일가족권부가 그러한경우가 적지아니합니다 그밧게노신경계통의병으로 신톄의 한부분에만 병변(病變)을 일으키는경우에 이병을일으킨편에만 특별히다량(多量)의 발한을 하는일이잇습니다 그리고손발 거드랑미테는 건에말한바와가튼 리유로인하야 발한이만히 되지마는 그중에도 특별히만흔이가 잇스니 그들은항상 땀의자극으로말미아마 가려운곳이생기고 손톱으로 긁음으로써 생채기나기쉬웁고 또는피부병을 일으키며여러가지 복잡한병을 일으키는 귀화농관(化膿菌)이 부착하야 일이 적지아니합니다

二、발한결핍증 땀이도모지나오지안는다 는것은 살을띄인후나 다른피부병으로인하야 피부가권혀 파괴되어 한선이그부분에소실된 경우만을 제하고는그러할리치가 업슬것입에 불고하고 땀이나오지 안는다는것은 흔히이발한 결핍증이잇는 까닭이올시다 이것은 척수로(脊髓癆)척수염(脊髓炎) 신경쇠약히스테리등 병과병진되는일이 만습니다 당요병(糖尿病)결핵(結核)가튼전신의 악연증(惡疫症)의징상으로써 일어나는일도 잇스나 이것은드문일이요 흔히는 여러가지 피부병과함께 일어나는것 이올시다 땀이적게나오면 피부는항상 간조하기때문에 거칠하야 약하여지는동시 피부가 터지기쉬운것입니다

三、이한증(異汗症) 여병은땀이그성질부터 다르니 악취가나고 또는땀에보통우리가 볼수업는빗이 잇습니다 이악취는땀가운데 고형분(固形分)인 지방산(脂肪酸)이 분해하기위하야 생기는물질에서 나는것이니 양말에서나는 고린내 의복에서나는 고랍직은한 내음새가 모다이때문 이올시다

四、액취(腋臭) 그리고흔이봉들에게서 맷터가 부패한것가튼 악취가 난다는말은 우리가익히 듯는바이요 서양녀자들에게 흔히마틀수잇는 노린내암새 족저드랑미테서나는 악취도 다이때문이라 할수잇스나 여긔에는특별히 다른원인도잇다 하겟습니다 그럼으로금방새로 나오는땀도 악취가나는것이올시다 서양사람은 이것을청욕으로 항진케하는 향긔라고 돌오혀환영한다는말도 들엇지마는 조선서는녯날부터 이내음새를 지극히실혀하야 녀자에게 이내음새가잇스면 암내라고일컷고 소박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이 암내는 청년긔에 만히발하고만년(晩年)이되면 소실하는이가 만습니다 다음으로 섭취한음식물이 땀가운데 석겨나와 악취를 발산하는땀도 잇스니 술먹은후에나는땀내 평국사람들의 몸에서나는마늘내 또는병인의 배설물이 땀에혼합되어 특종의취긔(臭氣)를 발하는것등이 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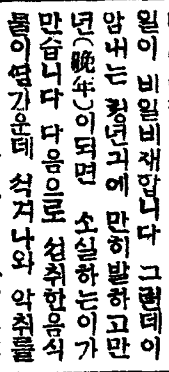
녀름에 얼굴 씻는법

신톄어느부분을 물론하고 하등의고장이 업스면서도 얼굴의 살결이것칠고화장이잘안되는것은 선텬뎍으로 못쓸살결을가진 사람이나 그러치 아니하면얼굴 씻는법이 넘우 란폭한까닭이라 하겟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흔히볼수잇는 일이지마는 세수 수건이나 손수건에 비누를부처서 얼굴을함부로 바바문질느는 이가 만히잇습니다 이것은누구나 절대로 하지안홀일이라하겟스니 피부를 부드럽고맷근맷근하고 생긔가잇게만들랴면 무엇보다도 세수할때에 자극을피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 그럼으로 세수할때에 사용하는수건은 융이나『가제』가 뎍당하고낡은『다올』이나 무명수건 베수건 등은 일절금할것입니다 그리고 세면료(洗面料)로는찬물을그대로 씻지말고 좀수고가되지마는 이러케하시면 매우 조흘것이올시다 즉왜붓하고 모래가석기지 안흔쌀겨를 한홉쯤 주머니를지어 그속에너코 미지근한물에한참담거두엇다가 꼭 그물에세수를하든지 혹은 설당을뜨거운물에 풀어서 그물을미지근하게식혀가지고 세수를하든지 혹은봉사(硼砂)를미지근한물에타서세일 아츰저녁으로 세수를하되우에그륵한 조뎨의 부드러운수건을사용하야 오래동안습운문질으로써수를 하라면 절단코비누는 사유하지말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름에는 더웁고땀이나서끈끈함으로 하로에도 몃번식찬물에 비누세수를하게됩니다 이것이 살결을것칠게하는 큰원인입니다(끗)

상의 약학을전공하고저 합니다

【문】 본인이약학(藥學)을전공하고저하는데 조선안에 약학교나 혹은약학강습소가 잇는지오? 그수업년한과 주소를 좀자세히알려주십시오 (東萊李星一)

【답】 경성황금뎡륙뎡목(黃金町六丁目) 십팔번디에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가잇사오니 자세한것은 그리로 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一記者)



童話 거지가된王子(三)

延星欽

이튼날아침에 왕후는 그편지를왕자가잇는이웃대궐에갓다두라고신하에게주어보냇습니다 『왕자의두눈을 빼어대궐밧그로내어쫏치라』 편지에는 전과가티 이러케씨엇섯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혀편지에입금님도장이뚜렷이찍혀잇섯습니다

이편지를 바더들은 왕자는별안입을 담을지도못하고 벙벙이하며 이가티 부르지첫습니다『요전번편지에는 아버님도장이 업서서 계모의짓으로알엇더니 이것이 그럼정말이란말이냐? 아ㅣ아버지는나를 영영히 버리시려하는고나!』

왕자는 더참을수가업서서 목을노아울엇습니다 온종일 그칠줄을몰으고 울엇습니다 그러나 울음도 마음썻그쳣을수가 업섯습니다 문밧게서는 웅얼웅얼사람들의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왕후에게서 건너온사신과 함께온 못된신하들이 왕자의방으로와르르 몰려들어 왓습니다 왕자는 깜작놀래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벌떡일어낫습니다 그러나 그신하가운데 괴운차게생긴사람하나가 왕자의앞으로 갓가히다어서더니

『왕자님! 신들은상감님의명령으로 왕자님의 두눈을빼주십시사고 왓습니다』

하는말이 마치자말자 왕자를잘어내리어 방문밧그로 밀쳐내엿습니다

갑작이 대궐안은 물끌틋이야단법석이 일어낫습니다 여긔저긔서 왕자님신하들의 우는소리로대궐안은 떠들이찻습니다 대궐안뿐만아니라 이소문이 퍼지는곳마다 그곳에사는 백성들은대궐압헤달려와서

『웨그러케 인자하신왕자님을 몹시구십가?』

하고 목을노아울엇습니다 그러나왕후보다 지지안는 못된마음시를가진 사신(使臣)은 조곰도애석히녁이는 빗치업시 백성들의부르지저울며 날쳐는것은 거들떠보지도안코 왕자를 뒤뜰로끌어내어 무지하게도 눈을빼엇습니다 그리고그대로 본국으로몰아가버렷습니다

왕자는 엇더케하여야 조흘는지 울어도 소용업고 부르지저도 소용업섯습니다 이케는 두눈이빠지 장님이되엇스니 어듸가어듸인지동서를 구별할수업게 되엇습니다 그리고또 대궐에서내어쫏기엇스니 어듸로가야 조켓습니까?

왕자는 하는수업시 정들은양금하나만가지고 더듬어서 발내키는대로 걸어나갓습니다 그리고배가곱흐면 이집저집으로 들아다녀 구걸하야어더먹고 밤이면나무뿌리를 벼개삼아 풀숩우에서 자는외에는 다른수가업섯습니다

이가티 몃달동안왕자는 구걸하며 돌아다녓습니다 이케에몸에걸친옷도 갈갈이 찌어지고 몸뚱이는 때투성이가되어 싯검엇케뎌어서 거지중에도 상거지엇습니다

이케는 아모것도 미들것이업고 자긔의마음을 위로해주는것이라고는 양금하나밧게 업섯습니다 왕자는양금을 뜻는그동안만은 모든슯흠과걱정을닛고 즐거워하엿습니다

〈百年間海水浴服의變遷〉 사진은최근백년간구라파부인의해수욕복의 변천을뵈인것인데 사진중간에년호가업는것은금년에 새로류행하는 해수욕복이라합니다

兒童劇 猫와鼠(一)

登場人物 白猫——黑猫——鼠

알에몬은창고다 창고의문은열렷다 창고안에는만흔쌀가마니가 싸히엇다 창고밧게는흙뻐두마리의고양이가안저서 이야기를 하고잇다

黑猫 야옹 야옹

白猫 야옹 야옹

黑猫 (白猫의얼굴을 쳐다보면서)너는 무엇하려고 여긔와서잇니

白猫 나는 오날하로종일 아무것도먹지를못햇다 배가곱하서혹시무엇이 생길가하고 여긔안젓다 너는 무엇을잡아먹엇니

黑猫 김부자집곳간에서생원이나오길래 잡으려고 쪼차가다가잡어먹지도 못하고 사나운개한테를릴번만하엿다 엇지혼이낫는지

白猫 그러면너도굴멋단말이냐

黑猫 그래 배가곱하서 죽을지경이다

白猫 하로종일 굴무니까 눈이 쑥들어가는게 꾀운 이라고는 한푼어치도업고 참 죽을지경이다

黑猫 비말이올타

白猫 너구나 나는 말을조곰다커서마음내로것지를못하겟다

黑猫 엇지하다가그랫니

白猫 나는남의집 침하섯는데 달린 소고기를 떼어먹으려고압흘아니보고뛰다가고만잡바저서그랫다

黑猫 그것참 가엽고나 만히나 아니다첫니

白猫 말만들어도고맙다던택으로 괴히만히는아니 다첫다

黑猫 아니 배가곱흥구나 야옹 야옹

白猫 무엇이던지잡아먹을게잇스면 조켓다마는 한곳도눈에 띄지를안는구나

黑猫 심지어개고리라도잇스면 곳잡아먹겟다

白猫 개고리가튼면께범맛이잇게나는 올창이라도 잇스면곳 잡아먹겟다(배를쓰다듬는다)

黑猫 아이 배곱허라 야옹 야옹

白猫 요사히는 도모지 잔치하는집도업드냐 어되던지 잇거든 우리들이가서 양것훔쳐먹고오자

白猫 (생각하는듯이)글세그런데라도잇스면 우리들이 살겟지만도 요사히는 도모지업는 모양이더라

黑猫 죽는놈도업고쇠량도업고 색시도업스니까그런가보다 사람이죽거나 그러치 안흐면 실랑이나 색시가 잇서서혼인잔치라도하여야만우리들이덜어훔처먹을터인데

白猫 더구나요사히는날이더워서고기도잘아니사먹는모양이더라

黑猫 고기갑시올랏는가보다

白猫 갑슨아니올라도날이더워지면 고기를잘아니 먹게되니까그러치대관절소를잘아니잡는단말이다

黑猫 그렁듯도하다

白猫 (원긔업시약한목소리로)애 우리들이가서자살이라도하자어되살겟니 배는 곱흐고 먹을것은업고도모지살수가업고나

黑猫 (흰고양이를보고 감란해으로)죽기가그다지 쉬우나살기보담도 더어렵다 되는대로 살지 죽으려고 애를쓸필요야잇니만콤을보아라모도다ㅣ살려고 애를쓰는데 왜무슨까닭으로 죽을생각을하니 설마살고잇스면 무엇이든지 먹을것이생기겟지 (이때에창고에서 쥐가한마리나온다)

鼠 찍ㅣ찍ㅣ찍ㅣ(고양이를보고서놀래어문뒤에숨는다)

白猫 (손으로 문뒤를가르치면서) 얘쥐보아라

黑猫 쥐다 쥐다

白猫 너는 저쪽으로모라라 나는이쪽으로몰러이니

黑猫 아ㅣ이것참조흔밥이생겻구나 자얼른잡자(白黑두마리의고양이는 쥐를몬ㅣ다)

鼠 아니잡히랴고 무데 우에서 이리저리다라난다 찍ㅣ

黑猫 (쥐를잡아가지고)잡엇다

飜譯藝術의有機的職能(七)

鄭寅燮

朝鮮의現實은果然엇든가? 總體的文化能率이 低卑한그만치 思想藝術에對한認識範圍가 狹少하고 世界文學의動靜에는거진餘波의 그림자도온전히맛보지안는다 헐ㅜ멍으로든지 또는거짓조희조각에서 무어인지를파들여다보아서 그것으로自己와自國의文化를批判하려고努力은해왓다마는 아직一集合多衆으로서의 自覺과態度와使命과理想을發見치못하엿다 最近에엇던綜合的意識目標를 세운듯하나그에對한 本質的努力은 各自의徹底한文化運動이아니면 안될것이다 綜合的目標는가져야한다 그러나일홈만의建設은 아모것도안된다 指導階級이든지 先進碩士든지 海外留學人이든지 또는무엇을안다는이든지 民衆은무엇을그대들에게要求하고 무언지기다리고잇지안는냐? 그들의期待에失望을줄것인가 光明을줄것인가? 그것은各自가各自를 가장明白히알것이다 自己가어든바最大最多를 그들에게提供하자 理解시키자 그래서쎄다름이잇게하자

朝鮮의文藝表現이 廣汎한外國文學의 影響을바듬이稀少한것은 自他가 다承認하는바事實이요 過去十年동안의作品은大槪가文字試練時代乃至描寫鍊習期라하면 語弊가잇슬는지도모르나 『人生의社會的意識에對한『藝術表現의深刻味』가缺乏하고 世界文學史上에 一路爲을지올만한『에폭메이킹』의 作品을바란다는것이無理일만큼 短時日의努力이엇다 그러나 그들의勢果와功績은決코적지안타 先進文學에서도 初期創始時代에는 보지못할만한結果는잇다마는 그偉大는今後에잇스리라생각한다 朝鮮의文學만치世界에紹介되지안흔것은업슬것이다 外國人이著述한『朝鮮』等本에는 大槪가風俗 史略 政策或은古代小說等에 國하엿고 旅行紀와外來宗敎書類를除하면 文學書籍은極少數 아니거진全無라해도過言이아닐것이다 單今的으로雜誌界에잇섯다해도 그것은決코내가意味하는 現朝鮮의文藝家들이創作한作品에關한것은아니다 그리고 朝鮮人으로서著述한것은 모도가政畧的見界를 가진것이며 最近에所聞잇는 元山天主敎神父엑하르트氏의獨逸文『朝鮮語交際文典』은多少文學的乃至藝術的氣分을期待할수잇는듯하나 그것도亦是古典的硏究乃至 口傳文學에限한듯하다 이러케말한다고外國에紹介안되엇다는것이 決코恥辱이라는誤解해서는안된다 紹介된다는것이 무슨큰자랑도안되겟지마는 外國에影響과感銘을미칠만한質과量이업다는것에그原因이잇다 고생각한다면 自己自身의作品이 남에게도또는外國에實名되기를願치말고 自己의思想藝術의機能保度를反省해보아서또는그것을偉大한外國의作品에빗초여생각해보아서 取할것은取하고 棄할것은棄하려는 文學構成的努力에專心하는것이 取할바맛당한態度일가한다 다시말하면 國民文學의傑作인同時에世界文學全般으로보아서도 異彩의一傑作이되는地境이 하로밧비오도록기다리지안흘수업다 거긔에서비로소眞正한意味의 『코리안』文學이構成될것이다 眼界를넓혀世界文學의過去現在一般에對하야 卒業함이업고는 그胎生이困難할것은 能히豫言할수잇는바이다

라듸오

二十九日 放送 푸로그람

午前九、〇五 相場放送

一〇、三〇 料理獻立 日用品市勢

一〇、五〇 相場放送

午後〇、三〇 講演兒童敎育 廣業醫院長 朴容來

一、三〇 天氣豫報

一、四〇 相場放送

三、四五 相場殘部 뉴쓰

六、三〇 童話 法螺貝의[illegible] 小池長

運動界消息

映畵物語 白虎隊 解說 櫻田耕作 洋樂指揮 田中朝陽 和樂指揮 今居榮造

趣味講演 梵語와日本語 貯金管理所長 松島淳

하모니카獨奏와奏法講座(第一回) 菊田辰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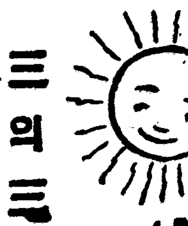
落語 狸 (流行端唄) 柳亭燕路

뉴쓰 天氣豫報 翌日順序發表

時報 뉴쓰 天氣豫報

歌詞數種 全月香 漢城券

伽倻琴倂唱 同 黃菊香



새세상사람들 (十)

柳葉 作 李靑田 畫

三의三

태호는 복주의대답소리를 듯을때에 가슴이 울렁하는동시에 온몸둥이에퍼저잇든모든 신경이일시에 귀ㅅ가로몰려오는듯하야 머리가 쭈뼛하는것가텃다 태호는 자긔마음가대서는 그대로 꽉써안스고 모든 다친데를 만저주고도십헛스나 이목을 엇지할수가업서 부득이 머리와동만을쓰다듬으면서 말하엿다

『복주야! 정신차려 일어나거라응?』

복주는 한참을 졸는사나희가 누관에 엇더한 정신업시맛와서 자긔를 말려주는것만알엇스나 누구인지는몰랏다 그러나차차 그어머니와 무답을하는것을듯자하니 그는바로 웃동리 진사댁——태호의아버지가 진사이엇슴으로그집을 그러케불럿다——도련님인듯십헛다 복주는 태호를직접보지은업섯지마는 그말은 만히들엇다 똑똑하고 잘라고 인정잇다고 모든사람들의칭찬하는소리들여러번 들엇기때문이엇다

복주는 울면서라도 그가아니고는 그사나운 자긔어머니를 커려듯 남을알사람도업고 또 남을안내야 듯을 자긔어머니도아닌줄을잘안다 그러나방금 자긔의집에서는 진사댁의돈밧을 지어먹고 또 그집에서준 미천으로 술장사까지하고지나는처디다 과연 그집의명령을 거역키는어려운터이라 그사나운어머니도 별수업시머리를숙이는것인것을 알엇다 그러다가 태호가 자긔의몸에 손을 대이면서 자긔의일홈을 불으는데에는엇더케하여야조흘지를 몰랏다 그케야붓그러운생각이나서할수만잇스면 당장에 땅속으로 꼭들어가고도십흘만콤 알흔것도다다라나고 붓그러운생각이 마음에서 소사올라왓다 그리하야 그의 불으는데에죽을힘을다하야 겨우대답을하엿다 그런데 더욱이케는니 복주는 그만 그대로 일어나라고까지 재촉을밧게되어나서 다라나고십헛다 그러나 그리지도못하고 겨우강잉하야 머리를숙이고그압헤 올어안첫다 달빗을 밧는 복주의얼골은 아모러 할수업시 달빗이 빗최엇슴녕 붓그러워하는빗이몰려 벌ㅣ커케 달어잇섯다 태호는 복주를마조대할때에는 다시 손을내밀수가업시 자긔의온몸이부자유하여지고 그케는 자긔의 얼골도 붉어지는것을깨달엇다 그때마츰 밧게서 래선이의불으는소리를듯자 태호는일어섯다 그리하고 그녀편네에게 말을일럿다

『여보게 밤도늣고하엿는데 요란스럽게 굴지말고 어서자게』

『네! 어서 편히 가서쉬여가라우』

그녀인은 그제야몸을 돌리고 마로에서 뜰로나려스면서 인사들안다 태호는다시좀 복주에게 작별을하엿다

『이야 복주야 그만 일어나서 어서들어가쉬자거라』

『네!』 복주도 그제야 뜰로 나려스면서 여전히 머리를숙인채로 대답하엿다

태호는 큰길로나왓다 큰길에는그새하인이당도하엿다 태선이와들이서서 기다린다

『원 형님은 그리도일이만호십니까』 태선은우스면서말하엿다

『어서가자』

태호도 우스면서이말만하고는앞흘서서걸엇다 태선이와하인은 뒤를딸아걸엇다 태호는 [illegible]을시켜 황서방을 불르더고 하엿다 얼마못되어황서방이나왓다 태호를보고허리를굽혀인사를한다 태호는대답도미처할새업시 황서방을일러보내려하엿다

『여보게 오늘방은그만어서몰아가게 자네딸이 자네가속에서 어더마저 죽게됏네집안일이 엇지되어 가는줄도모르고 이게웬짓이야! 어서 가!』

『비! 갑니다』

황서방도 그의딸이 어더마첫다는말을듯자 새정신이난듯이 그만쏜살가티 그의집을향하고 나려갓다 태호와태선은 동구(洞口)를당도하자 집안에서 그어머니와 동리일가사람 여럿이 모혀서 기다렷다가 반가히들마저주엇다 일행은 집으로 돌아왓다 태호와태선은 그아버지를 들어가뵈인후에 약간의 요긔듯을조금식한후에 이밤에는 곤하니까일즉쉬자고하엿다 그어머니는올애간만에온 태선이를 자긔의방에서 자라고 권하엿다 태호는오면서 지난일을 잠간되풀이하다가 잠이들엇다 그가막잠이 어렴풋이 들으려할지음에 밧게서 자긔의 불으는목주의목소리에 눈을떳다 모긔장을통하야 마당을바라보니와복주가 울면서 방으로달려들어온다 태호는 벌덕일어낫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廿八日 正午 八七、

◇比較 廿七日 最高 九四、八

◇日出前五時三二 晝間十四時一三

◇日入後九時四五 夜間九時四七

月刊雜誌 自力 九月中創刊

너를죽일놈도너뿐이오

우리의生活은엇더햇스며

우리의生活은엇더하며

우리의生活은엇지할것인가

以上問題의硏究·批判

너를살닐놈도너뿐이다

金鼎高 李克魯 洪命憙 安在鴻 李灌鎔 李寬求 以外諸氏執筆

編輯兼發行所 釜山府瀛州町五七五 古今社

松都白菜種子

◎白菜 小一斗 四圓 一升 一圓

◎靑根 小一斗 七圓 一升 一圓七十錢

◎見本品 二種二合送料並三十五錢(先金要)

○注文時三割以上先金을要함 十斗以上注文時는割引이有함

開城郡京町五一五番地 金奎禧商店菜農部

愛酒家의大福音

輓近都市農村을勿論하고改良酒가散在하야朝鮮酒의固有한風味의損失됨을遺憾으로生覺한本組合은朝鮮酒의固有한風味를本位로하야大大的으로釀造하오니 一次試飮하야보시옵소서

京義線汶山驛前 坡州釀造組合 月鶴燒酒 藥酒濁酒 釀造元 振替京城一〇九九〇番

持約店募集 地方에特約店을募集하오니希望人士는來臨又는書信으로問議하시옵

特約店 京城鍾路二丁目 李周賢商店 鐵原驛前 李永泰商店 江華島 黃祐寬商店

天下를울니는이冊의內容目次

죽음보다압흔悲嘆의大文字

梁山通度寺가는길(紀行)(南朝鮮의樂園이라는梁山通度寺를차즌大紀行)

아다미海邊에銀사실물결(紀行)日本서第一이라는아다미海邊을차즌紀行

銀色月夜에자는海金剛(紀行)世界의第一이오朝鮮의자랑인海金剛의月夜晩!

高原의黃昏(詩劇)高原의빗긴黃昏아래서、情熱과寂寞을노래하는詩劇!

漂浪의家族(詩劇)……

文藝와人生(論文)文藝와人生의、根本的關係를論한、不可不讀의金文字!

내靈魂이쉬는小樂園(感想)作者의人生觀을그린、意味深長한大文字!

孤獨의伴奏者(隨想)갈곳업고呼訴할곳업는孤獨者의마음을그린感想文

永遠한憧憬과放浪性(感想)哭피는未知의世界를찻고키하는、憧憬과放浪을그린長編感想文!

天才讚美論(小論)天才讚美의滋味잇는硏究小論文!

自殺俱樂部(隨想)自殺과自殺俱樂部의內容을그린、長編感想文!

永遠의平和(感想)永遠한平和를讚美하는、滋味잇는感想文

白頭山의달낙기(傳說)白頭山天池의아름다운傳說!

追憶의王國(散文詩感想)少年時代、지나간넷날을追憶하는感想!

꿈가튼處女들의마음(散文詩感想)天使갓흔處女들의꿈을그린感想

生活의美化와藝術(隨筆)엇더케살가?生活의美化와藝術을論한隨筆文!

文藝創造와人格(隨筆)文藝家의人格과修養을論한滋味잇는論文!

文學과無産文學의實相(評論)文學과無産文學이란무엇인가를論한、文學의根本的硏究論文!

發行兼編 發賣所 京城昌信洞一四三 振替京城一二八三七 靑鳥社

002807

出版當日에八百部賣盡!!

朝鮮初有의出版界大歡迎!!

作者의말

나의쓴冊中에、가장自信잇는冊이다。내가冊을써노코、깃붐을늣겨보기는이冊이처음이다。나는이冊가운데、『사람은웨사는가?』『어대로가야、꼿피는未知의樂園을發見할가?』『朝鮮사람은웨눈물이만흔가?』『나는、웨업수임밧는朝鮮사람으로생겨낫는가?』『朝鮮쌍우에福을나리시옵소서』이러한問題를精誠과、눈물과、피로써노앗다。반다시、뜻잇고、생각잇는、젊은이들의게、歡迎을밧으리라생각한다。

大朝鮮의苦悶아래

피吐하며우는靑春魂!

限업는煩悶의伴奏者!

洋裝 四六版上本 定價 一圓二十錢 頁數 二六〇 【送料十六錢】

新刊 感想隨筆詩劇 荒野에우는小鳥

春城 盧子泳 作

休銀整理案決定
資本金二千萬圓 名稱은昭和銀行

(東京電) 休業銀行整理는大體左와如히決定하얏다더라
一、京濱七休業銀行의外將來十五、近江兩行併合資合二千萬圓
一、名은昭和銀行
一、開業은村井銀行과同時大體八月下旬
一、株式은大概三井、三菱、第一安田、住友三十四로引受할으로公募치안코預金의株式振替도避한다
一、三菱其他로부터取締役을就任시킬것
右案과如히出資한京阪有力富豪는新銀行의計劃을消極的으로시키지안코經營을積極的으로하야相當利潤을擧하라고希望하고잇다더라

昭銀開業期
八月下旬頃

(東京電) 休業銀行의整理銀行인昭和銀行設立은十五、近江兩行의加入을豫想하야資本金二千萬圓으로하고八月下旬頃開業할터인바그株式의過半은有力銀行과富豪로引受를承諾하고大大的으로進步하얏다더라

全朝鮮 高率預金整理
거의七分五厘以下

總督府에서는全朝鮮預金利子引下하기爲하야銀行金融組合과協調를努力하는바京城銀行와如히全部七分五厘以下로引下를終한銀行은相互間及對金融組合關係上困難하얏다開城、水原、平壤等도全部七分六厘外지引下하게되엿는데잇스나七分五厘外지의利下는實現될豫想이다만은組合銀行의預金利子가甲六分五厘로地方의七分五厘에比하면一分의差가잇서多少差가過多한嫌이잇스나지금으로는此以上의差를縮少하기는特別한機會라도업는限에는困難이겟더라

今年米價는變態
原因은아즉도不明

(東京電) 山本農相은米價問題에對하야今日閣議에서左와如히述하얏다더라
現在米價의趨勢는例年에比하야變態的의것이다그原因에對하야는目下研究中으로的確한바는아즉豫測不能이다事情에依하야는何等具體策을講究치안흐면안될것이요또事情에依하야는農林關係일뿐아니라多少라도考慮를願하는듯한問題가起치안흘것이라고도限할수업슴으로미리諒解를求하는바이다云云

進的으로强氣의鋒先이鈍케되어서米價는月初부터六百丁假量暴落하야二十九圓臺가되고銀行의警戒는增加되어及其資金難을告하얏다다시鮮目이모다旱魃에伴하는背田髻의結果低入氣로集中되엿다닭인데或은米價低도一巡하면反動高를볼수잇슬지도不知이나目下로는豫斷을不許한다더라

米價問題 當局傍觀
委員會開催協議

(東京電) 米價問題에對하야는民間으로부터農林當局의態度를注視하고잇스나當局은神經過敏的對策의決定은愼重히할것이라는意見이有力하야二十八日의米穀委員會에서도農相이委員의質問에明答을與치아니햇다그러나이狀態가繼續되면臨時米穀委員會를開하고對策을決定할지라도지금의形便으로는傍觀할外에는업다더라

米價調節放任과
◇帝國農會運動

(東京電) 農林當局의當分米價調節放任의方針決定은主로目下米穀은實際로는大部分地方大地主와大商人의손에잇슴으로農村振興及社會政策의處地로하면目下價格으로는依然히調節할時機가업다는見地인듯하다그리고帝國農會는買上과關稅撤廢等의一時的施設보다도農家의投賣를防止하야米價를維持코저根本的低利資金의融通을政府에要望하고不遠具體的運動을開始할模樣이더라

米價低에對한 總督府側觀察

最近米價低에對하야總督府農務課方面의見는바로는低落의原因은昨年에非常한不作의際이高하기때문에昨今에持越한在米가減少하고朝鮮은豐作이엇든關係도잇서거의前年에倍되는在米高임으로鮮日을通하야豫想한만큼年은前年에比하야日本은相當히在米가減少되지만此後强氣側은數年來의弱氣에感壓되엇슴으로其他以上은突込치못하고大商側의氣勢가드되어上昇치못하야滯

朝鮮 胡麻油産額
年三萬八千餘石

◇胡麻油産地及産額‖胡麻는氣候가溫和하고乾燥한大氣를조화함으로土質은排水佳良의砂壤土를가장適當으로하는바또그土質에도適應하고其性質에도馴從함으로風土의變에應하는力히强함으로此栽培도그다지盛치는못하나全朝鮮到處에多少栽培되는바昨年中의胡麻收穫高는三萬八千餘八十七石으로京畿四千九百五石忠南五千三百四十二石 忠北四千二十七石等이其主要한것인바昨年中各道別産額은左와如하더라

全南	[illegible]石	京城	[illegible]石
忠北	[illegible]	江原	[illegible]
忠南	[illegible]	黃海	[illegible]
平北	[illegible]	慶南	[illegible]
慶北	[illegible]	平南	[illegible]
全北	[illegible]	咸南	[illegible]
咸北	[illegible]		
合計	[illegible]		

◇胡麻原料‖朝鮮의胡麻需額은一個年三萬八千餘石으로此만으로는朝鮮의製油原料로서三分二에도充하지못함으로滿洲로부터白胡麻를輸入하는데其輸入額은一個年三萬八千餘石七十四萬圓이더라(京城商議調査)

資金偏在緩和策
各債券을發行케하야 一流銀行이引受케해

(東京電) 三土藏相은勸銀、興銀、農銀으로하야금各債券을發行케하야此를一流銀行에引受케하야過剩資金을吸收하야此를地方에融資케하야地方의諸工業振興을圖할것과地方債의條件을緩和하야될수잇는대로認可하야此를一流銀行에게引受케할것이며復興貯蓄債券의發行을中止할것、米貨興業債券五千萬圓支拂로預金部의在外正貨를買上하야이預金部의手取金을地方에融資할것等資金偏在傾向緩和策의腹案을가젓다더라

緩和에는 勸農銀을利用
三土藏相談

(東京電) 一流銀行資金偏在緩和로因하야勸農銀으로하야금債券을내게하야이를一流銀行에引受하게하고勸農銀은此의資金을地方에貸付함에는高利로地方産業發展에預金部資金을融通하고休銀問題는二十九日의震災手形委員會의結果爲先村井銀行의整理案을發表하고預金者의銀行間에서預金取扱에對하야協定할模樣으로預金者도ㄹ다지頑冥한主張을아니하리라고생각한다더라

朝鮮新繭狀況

郡名	最高	最低	賣削
忠南禮山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寧邊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龜城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熙川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楚山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都市金組 預金利下
來一日부터實行

府內九都市金融組合의組合員과非組合員과의定期預金利率의差別撤廢及利率은各組合共히이미當局의認可를得하야八一日부터一齊히改正利率에依하기로되어金融組合의金利問題는此로써一段落을告하게되엇는데各組合現在의利率及改正利率은左와如하더라

	組合員	非組合員	改正利率
南大門	七、五厘	七、三厘	七分
西大門	七、五厘	七、三厘	七分
光化門	七、五厘	七、三厘	七分
鍾路	七、五厘	七、三厘	七分
龍山	七、五厘	七、三厘	七分
新龍山	七、五厘	七、三厘	七分
西大門	七、五厘	七、三厘	七分
東大門	七、五厘	七、三厘	七分

京電一割二分

(東京電) 京城電氣會社는二十七日株主總會를開하고配當一割二分案을可決하얏더라

金組貸付‖ 短期低資利率
年內에償還豫定

短期低利資金四百萬圓의金融組合貸出은預金部로부터六分으로貸出하고殖銀이一分의差를取하야七分으로聯合會에出하고聯合會로부터七分三厘로金融組合에貸出케될模樣이다現在普通資金은殖銀으로부터八分七厘로聯合會에出하고聯合會로부터九分으로組合에내는바임으로一分七厘假量의低利이다더욱이短期低利資金은年內에償還하라고하는바期間은五月頃부터十一月外지가資金融組合側에서는短期이라고하야朝鮮金融組合에必要로하는時期임으로短期라고하더라

豪雨로 印度棉花被害

(倫敦二十七日發) 印度「봄베이」로의報에依하면同地方에豪雨가잇서棉花에多大한損害가잇는模樣이라더라

鮮銀株主總會

朝鮮銀行第三十六回定時株主總會는來八月六日午前十時부터東京丸之內鮮銀支店內에서開催하고左記의件을附議한다더라
一、第三十六期營業報告 貸借對照表 財産目錄 損益計算書承認의件
二、第三十六期利益金處分議決의件

期米 仁川期米 廿八日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	—	—
中限	[illegible]	[illegible]	—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 亂高下

昨後場阪地三十四圓二十六錢止와共히三十圓七十一錢에寄를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三圓九十錢인三十六丁의反落을據하고 三十圓三十六錢인 三十五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四圓寄로返戾함과相俟하야五六十錢寄로反騰할際에阪地十九錢으로二十錢外지跳返함을받아七十九錢外지奔騰하엿다가結局阪止○二錢의突落을受하야六十五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三十四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三十七丁이더라

浮動步調로 中間天井鍛鍊

過去의波瀾을回顧하면植付時期에旱害의騷動이極度로甚하엿슴에도不拘하고依然軟態에陷하엿슴은財界의不良이主動되어容易히高價를不許하엿는바此過去의實例로서未來를推測하면앞흐로二百十日又는白露等諸厄日의經過가設或一時의不順을示한다할지라도어느程度外지反撥後에는結局金融의不如意와相俟하야畢竟瓦落의形勢가再演되리라한다果然此邊의反高는意外急落의反動으로볼수밧게업스며從하야何等의硬材를胚胎하지못하엿슴으로繼伸할餘力이無히浮動的步調로中間天井을鍛鍊함과如하다고某軟派는云云

月終戰은 此邊에終了乎

本月中에三十圓大臺割의暴落은實로軟派로서도豫想以外의相場으로認하는만큼約百餘丁의激烈한反動을示한後一進一退의亂調로大幅保合을支續하는바殆컨대此邊에서往來하다가月終을終了하지안흘가한다土用好順의低落도既히一巡하엿다할수잇슴으로此月末內에又復續落하지는못할것이오又는何等의弱材도無히急騰을告한後일으로또한續伸하지도못할것이다目下情勢가如是함으로來月新甫가發會된後天候의次第를따라一騰一落의波瀾을惹起하리라는바實로今後本天災期의相場에對하야누구나疑問이업지아니하나大體의稻作은豐作의徵兆가多함으로戾價待의買方針을樹하는것이良策이아닐가하는商賂이多하다고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	[illegible]
六節	—	—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	[illegible]	[illegible]

後場小高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illegible]

各限寄合

	當限	中限	先限
二節	—	—	[illegible]
三節	—	—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	[illegible]
六節	—	—	[illegible]
七節	—	—	[illegible]

▲賣方 ▲買方 [illegible]

大阪期米

	當	中	先
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四圓二十三錢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市勢

玄米三等	四等	三〇、二〇 / 二九、七〇
無撿査米		二八、五〇
一等精白米		三四、〇〇
在來正租		九〇圓
改良正租		九一圓

仁川精白移出高(廿八日)

發送者別(直積)大阪沖着外지
㊉精米所 三六、——
司精米所 三五、九〇

二十錢大引二本이오仁新은二十七圓五十錢寄一本이더라

京取市場 株式
京取短期取引 廿八日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	—	[illegible]	—

前場昂進

京取	四〇高	大新	保
鍾新	四〇高	東新	一五〇高

東新은亂高下 鐘新京取一進

今朝前場堅强頭重으로東新亂高下百三十九圓三十錢步로漸次騰勢로推移하며四十圓大臺로恢復되며亂高下中三十九圓九十錢大引이오大新은七十七九十錢寄後八圓四十錢으로一昇한後十錢大引이오鍾新은百二十四圓四十錢寄後六十錢大引이二本이오京取는寄不成으로二十二圓丁高步로十錢인續高로大引이엇다

保合圈內不脫

證券市場은從伸難伸의態로一高一低中小幅往來뿐으로保蓋狀態를取하는데이계買關路의原因으로는中國動亂의南北妥協이容易히成立되지안하依然紛糾中에在함으로貿易關係가아즉도樂觀을不許한과遊資證券化는虛斃뿐으로容易히資金을得키難한것이現實임과또는休銀整理問題도具體化하는것가트나依然積極的案이出치못하고其他川崎其他問題가此戾返을小天井으로當分保合圈을離脫치못할으로아즉保合乃已이라고觀測함이至當하겟더라

東新騰落不一

東新은近日그軟勢이一律로判斷할수업는態度로忽騰忽落을하는바今朝도一圓六十錢高放인百四十圓關門恢復이더니다시反落하고또한前場高放이면後場은反落한것이相場이되어잇다此는保合圈內에서多少仕手關係만을背景으로하는까닭이더라

大新鍾新本日步

大新은買方受株五十枚株過剩으로本日步三十五錢이오鍾新은六十枚株過剩으로本日步五十六錢이더라

東新依然逆日步

東新은逐日不足株增加로逆日步가引上되는데今日도買方受株千七百八十枚로增加하야逆日步七十錢이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堅保

京取	一〇高	大新	保
鍾新	五〇高	東新	三〇低

京取鍾新亦堅 東新底强頭重

後場은東新百四十圓卅錢寄後五十錢으로一進後三十九圓六十錢으로反落低引이고大新은七十八圓四十錢寄後五十錢에結局十錢大引二三十錢細刻이다가結局十錢大引二本이오鍾新은百二十五圓十錢大引二十錢寄와二十錢大引二本京取는二十二圓五十錢寄와二十錢大引二本이오仁新은二十七圓五十錢寄一本이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仁新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大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長期合計 累計 ▲短期合計 累計 八五、六六〇〇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鍾新 [illegible]
▲前場久原 [illegible]
▲前場東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鍾新 [illegible]
▲後場久原 [illegible]
▲後場東新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用大形ミツワ石鹼)

石鹼中의石鹼
◎ミツワ(미쓰와)石鹼
其溶解性……과이단단치도안코과이연하지도안으며잘溶解되면서도부스러지지안소
其芳香……些少의嫌味가無하며溫雅한그것。
其泡沫……크림狀으로이는豐富한거품。
其作用……特히緩和하며同時에些少의石鹼分을남기지안소。
其使用後……거칠지도안으며매끄럽지도안으며滑하고도輕快한그맛
其保ち……中途에부스러지지안으며普通의煉石鹼의三倍以上을保有함

通知
從來의『黃函入』德用◎미쓰와石鹼以外에今般『赤函入』廿號미쓰와煉石鹼을賣出햇습니다。價格은廿錢이오니共히愛用하시오

不斷히品質向上으로日夜科學的研究에盡力하고잇는主要한技術家諸氏
理學博士 小平 勳氏
藥學士 河村正鑑氏
工學士 三雲次郞氏
工學士 野中正夫氏

◎ミツワ石鹼本舖 東京 丸見屋商店

BLUTOSE

健强하고優美한體軀의構成에는……
純全한補血强壯增進劑
부루도-제
芳香과美味가有한것이니連續服用하면能히血과肉을增進하야根底로부터體軀을改善한다

虛弱・病後의衰弱・心身疲勞・月經不順에
早味 부루도-제 一瓶一月分 一圓五十錢
榮養不良・神經衰弱・衰弱太甚한人・皮膚病에
아무젠 부루도-제 一瓶一月分 [illegible]
腺病質・佝僂病・齒痛・小兒發育不全에
요-도 부루도-제 一瓶一月分 [illegible]
精神過勞・食慾不進・老衰虛弱・產前產後에
기나 부루도-제 一瓶一月分 [illegible]
肋膜炎・肺尖加答兒・喘息・肺病・百日咳에
구아야코-루 부루도-제 一瓶一月分 [illegible]

發賣元 京城西小門町 藤澤京城支店 振替口座京城五五八九番

東京株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 綿絲 橫濱生糸 延取引 大阪